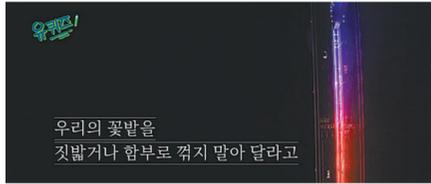


One pick

업 앤 다운



“우리의 꽃밭 짓밟지 말아 달라” ‘유퀴즈’ 토로에 더 거세진 비난

방송 말미에 ‘제작진 일기’ 자막 띄우며 윤 당선인 ‘외압 논란’ 우회적 입장 표명

“우리의 꽃밭을 짓밟거나 함부로 꺾지 말아 달라.”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출연을 앞두고 프로그램 취지 훼손 및 정치색 등 논란을 모은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유퀴즈) 제작진이 이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시청자 반응은 싸늘하다.

‘유퀴즈’ 제작진은 27일 방영분에서 ‘폭풍 같았던 지난 몇 주를 보내고도 아무 일 아닌 듯, 아무렇지 않은 듯, 챗바퀴에 그저 몸을 맡겨야만 하는 나의 제작일지’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여기서 제작진은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마주했을 땐 고뇌하고 성찰하고 아파했다. 다들 그러하겠지만 한 주 한 주 관심이 아닌 정성으로 일했다”면서 “그렇기에 몇몇에게 외칠 수 있다. 우리의 꽃밭을 짓밟거나 함부로 꺾지 말아 달라. 우리의 꽃밭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프로그램 진행자 유재석·조세호)과 함께한 사람 여행은 비록 시국의 풍파에 꺾이기도 하면서 변화를 거듭해왔지만,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시선만큼은 묵숨처럼 지키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이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훗날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제작진의 마음을 담은 일기장”이라고 써 여론을 남겼다.

‘유퀴즈’는 윤 당선인의 출연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의 포화를 맞았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출연 요청을 제작진이 거절했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방송 직후 잇따르면서 ‘정치적 편파’ 등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급기야 ‘국민MC’로 불리는 유재석에게까지 인신공격성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었다. 하지만 tvN의 모회사인 CJ ENM이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제작진이 에둘러 입장을 표현한 것을 두고 시청자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청자들은 “말장난”, “꽃밭을 스스로 망쳐버린 제작진”,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소년심판’ ‘내일’ 이어 영화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까지

‘학폭 콘텐츠들’ 선한 영향력 빛났다

‘니 부모’ 시사회 교사 200명 참석 “이런 일 안 생기도록 더 힘들 것” 박하선 “있어선 안 될 일” 목소리 학폭 전문가도 콘텐츠 효과 기대 “사회적 문제 인식 자리잡기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뚜렷한 사회적 해결책을 찾기도 여전히 쉽지 않다. 이런 시점에 몇몇 영화와 방송프로그램이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표현 방식에 대한 제작진의 세심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콘텐츠의 선한 영향력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 MBC 드라마 ‘내일’ 등에 이어 27일 개봉한 영화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니 부모)가 학교폭력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작품으로 호평 받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피해자의 아픔을 넘어 가해자와 그 부모의 시선으로 그려내며 어른들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개봉에 앞서 22일 열린 영화의 특별 시사회에 참석한 200여 현직 교사들은 “자식 앞에서 잘못을 은폐하기 급급한 요즘 부모들의 모습이 생각난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없이 애쓰겠다” 등 메시지를 전했다. 구독자 40만 명에 육박하는 전지 초등학교 교사 출신 유튜브 달지도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영화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돼지의 왕’(왼쪽부터) 등 학교폭력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잇따라 공개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5분) 강연 채널을 통해 ‘니 부모’ 같은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6일 ‘니 부모’의 주연 천우희가 게스트로 출연한 SBS 파워FM ‘씨네타운’에서 진행자 박하선은 자신의 학교폭력 피해 아픔을 고백하며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6일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은 학교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후 그 예방 활동에 헌신해온 푸른나무재단 김중기 이사장의 사연으로 먹먹한 감동을 안겼다. 많은 시청자가 공감했고, 방송 이후 푸른나무재단의 후



영화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돼지의 왕’(왼쪽부터) 등 학교폭력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잇따라 공개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자가 3800명, 후원금도 1억 원 이상 늘었다. 이준기의 팬클럽도 그의 생일인 4월 17일에 맞춰 재단에 417만 원을 전달했다.

● 창작자들의 신중한 자세 필요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는 전문가들은 가치 있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꾸준히 일깨우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28일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김석민 팀장은 스포츠동아에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학교폭력이 학생들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표현 수위 및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김 팀장은 말한다. 그는 “폭력을 단순히 극적 전개 수단으로만 사용하거나 가해 학생이 영웅시될 만한 설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그린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돼지의 왕’처럼 “폭력을 통한 사적 복수를 정당화하지 않는 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장병들에게 상실감 준다”...유승준, 두번째 입국비자 발급 소송 패소

“유승준 존재가 장병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

병역 기피 의혹으로 20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5)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이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



유승준

소 판결을 확정 받았지만, 확정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부 처분은 (대법원이 지적했던 LA 총영사관의 재량권 불행사라는) 중전의 위법 사유를 보완해 이뤄진 새로운 거부처분이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면서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협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

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승준은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다 2002년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비난을 받았다.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하자 첫 번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성경은 쉽고 복음은 간단하며 믿음은 단순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증거되는 하나님 사랑의 약속이 사실임이 증거되고 선포되지 않고 성경 읽어 놓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해 온 참혹한 결과는 수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믿노라 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며,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며, 사실은 생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책이라고 이미 결론 내신 쉬운 책임입니다.

2. 복음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로 말미암는 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의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3. 믿음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복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 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애써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다. (롬 10장 2-3절)

종교에서 진리로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이 통으로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세미나 일시 및 장소 :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오후 3:30 / 주영광교회 (대전시 서구 둔산동 1236번지)

(사) 성경영성아카데미 대표 서종열 목사 010-5457-1009

예수복음특사선교회 총괄특사 원명구 목사 010-5337-3767
고문특사 진보라 장로